제10강 베르그송의 사고와 사상

(1교시)

◆베르그송 사고의 틀
※학습목표: 여러 철학자들이 가지는 사고의 틀과 베르그송 사고의 틀을 비교하며 베르그송을 이해한다.

▲데카르트 사고의 틀
-데카르트는 정신과 물질을 유한실체finite substance라 하고, 신은 무한실체infite substance라 한다.
-중세의 특수존재론은 신을 다루는 theologia, 영혼을 다루는 psychologia, 세계를 다루는 physica다. 데카르트는 이것을 재배치해서 신, 정신, 물질로 본다. 결국 psychologia와 physica는 완벽히 다르고, theologia는 별개의 것으로 본 것이다.

▲칸트 사고의 틀
-칸트는 참된 진리를 다루는 분석론과 거짓의 논리를 다루는 변증론을 구분한다.
-영혼에 관련해서 오류추리, 세계에 대한 형이상학적 주장들이 함축하는 이율배반, 순수이성의 이상으로서의 신을 말한다. 결국 칸트도 중세 때부터의 3분 구도를 유지한다.
-다만 칸트의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비판하려고 했다.

▲스피노자 사고의 틀
-스피노자에게 몸과 마음은 형식적으로만 구분formal distinction된다. 몸과 마음이 하나의 실체, 자연이다. 그래서 신도 자연이 된다.
-몸과 마음이란 속성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무한한 속성들이 존재한다.

▲버클리 사고의 틀
-버클리는 제1성질과 제2성질이 다르지 않다. 그래서 버클리에게 우리가 감각하는 모든 성질들은 그냥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다.
-버클리에게 우리가 감각하는 모든 것은 실재한다. 그런데 전부 객관적이지 않고 전부 주관적이다.
-신을 끌어들여 주관만 있음을 보충한다.

▲베르그송 사고의 틀
-근대철학이든 고대철학이든 출발점은 항상 영혼이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근대 이후의 철학들은 관념론적이다. 그러다 물질이 진짜고 영혼이 하나의 속성에 불과하다는 유물론이 나온다.
-베르그송에게 정신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. 그렇다고 물질이 가장 근본적인 것도 아니다. 베르그송에세는 단 하나의 실체밖에 없다. 그런데 그 실체에는 이름이 없고 분화된 형태에 대한 이름만 있다. 그 단 하나의 실체는 어떤 부분은 물질이라 부르고, 어떤 부분은 정신이라 부른다. 동양의 기일원론(氣一元論)과 비슷하다.

www.artnstudy.com

▲정신

-베르그송이 정신으로 놓은 것은 생명이다. 그리고 정신, 의식은 생명의 고도화된 형태다.

-베르그송에게 정신은 전체의 어떤 측면이다. 더욱이 생명이 일차적이고 정신은 생명의 고도형태다. 그렇다고 유물도 아니다. 유물론자들은 정신이 물질의 실재고 정신이 파생된다고 본다면, 베르그송은 아주 조잡한 형태부터 정신까지 기(생명)에 포함시킨다.

-그런데 물질적인 측면과 생명의 측면이 구분된다. 그래서 물질과 생명은 연속적이다.

www.artnstudy.com

(2교시)

◆인식, 기억, 몸
※학습목표: 베르그송의 사상을 구체적으로 본다.

▲몸
-베르그송에게 있어서 몸은 정신과 물질의 교집합니다. 데카르트의 물질과 정신처럼 완전히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, 스피노자처럼 아무 구분 없는 어느 하나도 아니다.

▲지속la dirée 혹은 시간, 운동성
-베르그송의 모든 사상의 기본 포인트는 지속(시간, 운동성)이다. 그래서 베르그송의 철학은 시간에 입각해서 보아야 한다.
-베르그송의 직관은 신비하고 애매한 것이 아니라 사물을 지속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. 이에 대한 자연과학적 표현이 진화론이다.

▲흐름과 영원
「*베르그송은 데카르트의 이원론과 버클리의 관념론을 동시에 비판한다. 물질과 정신을 가르거나 물질을 정신으로 흡수하기보다는 '지속(la durée)'을 일차적 소여로 놓고서 물질-흐름과 정신-흐름을 흐름의 상이한 종류로 놓고 나간다. 문제의 핵심은 물질과 정신에 있기보다 흐름의 두 차원에 있게 된다.*」
-어떤 근본적 실체가 있는데, 그 실체는 반드시 흐름으로만 존재한다.
-영원한 것, 본질적인 것은 베르그송에게는 나중에 생기는 것이다. 흐름을 초월한, 벗어난, 관계없이 존립하는 것은 없다.
-그리스철학은 세계의 본질이 영원한 형상들이다. 그렇기 때문에 왜 세계가 움직여야 하는지 설명해야 한다. 반면 베르그송은 우주가 완벽한 흐름이기 때문에 왜 동일성, 객체화가 가능한지 설명해야 한다.

▲운동성과 표상
「*각과 운동성을 중시한 꽁디야크와 의지(volonté)를 강조한 멘느 드 비랑(Maine de Biran)을 이어, 베르그송 역시 신체란 '운동성(motilité)' 및 '감각-운동계(système sensori-moteur)'로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보았다. 따라서 베르그송에서는 지각과 표상이 일차적인 것이 아니라 운동과 시간이 일차적이다. 지각과 표상은 운동과 시간에 입각해 설명된다.*」
-삶의 운동성을 접어놓고서 주체를 마치 감광판처럼 설정하는 것을 꽁디야크는 비판한다.
-맨느 드 비랑은 전통적인 인식론은 사물의 객관적 인식에 의지가 개입하면 안된다고 한 것에 비판한다. 이에 운동성, 의지가 개입해야 한다고 말한다.

▲주름
「*베르그송에게 신체는 물질성과 정신성이 주름잡혀 있는 곳이다*」
-물질의 층과 정신의 층이 접혀 있는, 주름pli잡혀 있는 곳이 몸이다.
▲몸의 특징

www.artnstudy.com

「그것은 물질=이미지들의 운동과 본성상 다르지 않지만 특이하게 운동하는 이미지이며, 동시에 정신이 세계에 삽입될 수 있도록 해 주는 첨점(尖点)이다.」
-본성상 다르지 않다는 것은 연속적이라는 것이다.
-신체는 물질적인 것과 불연속적이며 연속되어 있지만, 동시에 정신이 물질성에 삽입되어 들어갈 수 있다.

▲인식의 특권
「지각의 차원에는 신체의 감각-운동이 행하는 현실적 운동과 정신=기억이 행하는 잠재적 운동이 겹쳐져 있다. 인간이 세계와 맺는 관계에서, 또는 좁게 말해서 인식에서 신체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? 」
-베르그송, 하이데거 이후의 현대철학자들은 근대철학자들이 인식을 너무 특권화했다고 비판한다. 베르그송도 그래서 전체적인 존재가 먼저고 그 배경아래에서 인식론을 설명한다.

▲기억과 인식
「실제 인식에서 신체와 정신은 항상 함께 작동하며 궁극적으로 둘은 하나이다. 때문에 인식에서 정신이 행하는 역할인 <u>기억</u>을 솎아냈을 때 신체의 역할이 분명하게 드러나며, 이 차원에서의 인식이 '순수 지각(perception pure)'이다.」
-인식할 때에 내 몸이 아닌 지각, 내 몸이 아닌 '기억'이 함께 작동한다. 그래서 이에서 기억을 뺄 때 순수지각이 성립한다. 하지만 이것은 이론상이다. 실제 우리의 인식은 항상 지각과 함께 일어난다.

▲몸에 대한 집중
「베르그송은 칸트처럼 지각의 가능조건인 '감성의 아프리오리한 형식'이 아니라 신체에 주목한다. 이 점에서 '영혼(âme)'이나 '마음(mind)' 또는 '의식(Bewußtsein)'에서 출발하는 근대 인식론을 벗어나고 있다. 베르그송은 실체의 관점이 아니라 기능의 관점에서 사유한다. 신체 역시 다른 이미지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이미지로서 파악된다. 」
-칸트의 경우 대상이 촉발되고 이것이 표상된다. 그러나 베르그송은 신체에 주목한다.

www.artnstudy.com